

[제2016-55호]

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, Los Angeles	보 도 자 료		LA한국문화원 www.kccla.org 5505 Wilshire Blvd. Los Angeles, CA 90036 Tel (323)936-7141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총 2 쪽
배포일시	2016 08. 19(금)	담당자	최희선(323-936-3014)

제26회 미주한인서예협회전

▶ 일시 및 장소 :

2016.8.26(금)-9.9(금)

LA 한국문화원 2층 아트갤러리

5505 Wilshire Blvd. Los Angeles, CA 90036

개막식: 2016.8.26(금) 18:00

▶ 문의 : 323-936-3014 or exhibition@kccla.org

LA한국문화원(원장 김낙중)은 한국서예의 멋과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제26회 미주한인서예협회(회장 김성복) 전시를 8월26일(금)부터 9월9일(금)까지 LA문화원 갤러리에서 2주간 개최할 예정이다.

미주에서 서예 발전에 앞장서 온 미주한인서예협회의 이번 전시에는 여러번의 선정과정을 거쳐 출품된 40여점의 작품이 전시된다. 서예의 기본 서체인 전서, 예서, 초서, 해서, 행서체를 비롯하여 다채롭게 표현된 한글과 현대서, 그리고

문인화, 서각 등이 전시되어 볼거리가 가득하다.

“ 법고창신, 옛 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뜻으로, 옛것에 그 근본을 두고 변화를 시켜간다는 것으로 우리 문화 중에 좋은 것을 계승시키면서 시대에 맞는 문화를 창달하고 특히 이민 2 세들에게 아름다운 문자 문화를 창려하려는데 전시의 목적을 두었다”고 김성복 미주한인서예협회장은 언급했다.

김낙중 LA한국문화원장은 “ 이번 전시를 통하여 한국 서예의 멋과 수천년 동안 내려오는 한국인의 정신을 함께 느끼고, 우리 동포분들에게는 자긍심과 뿌리를 찾는 기회가 되고, 더 나아가 타 커뮤니티에게는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함께 느낄수 있는 기회가 될것이라 생각합니다.”라고 하였다.

이번 전시 개막식은 2016.8.26(금) 저녁 6시이며,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은 관람할 수 있다.

자세한 문의사항은 323-936-3014 혹은 exhibition@kccla.org로 문의하면 된다.

붙임 : 관련 작품이미지 3

강계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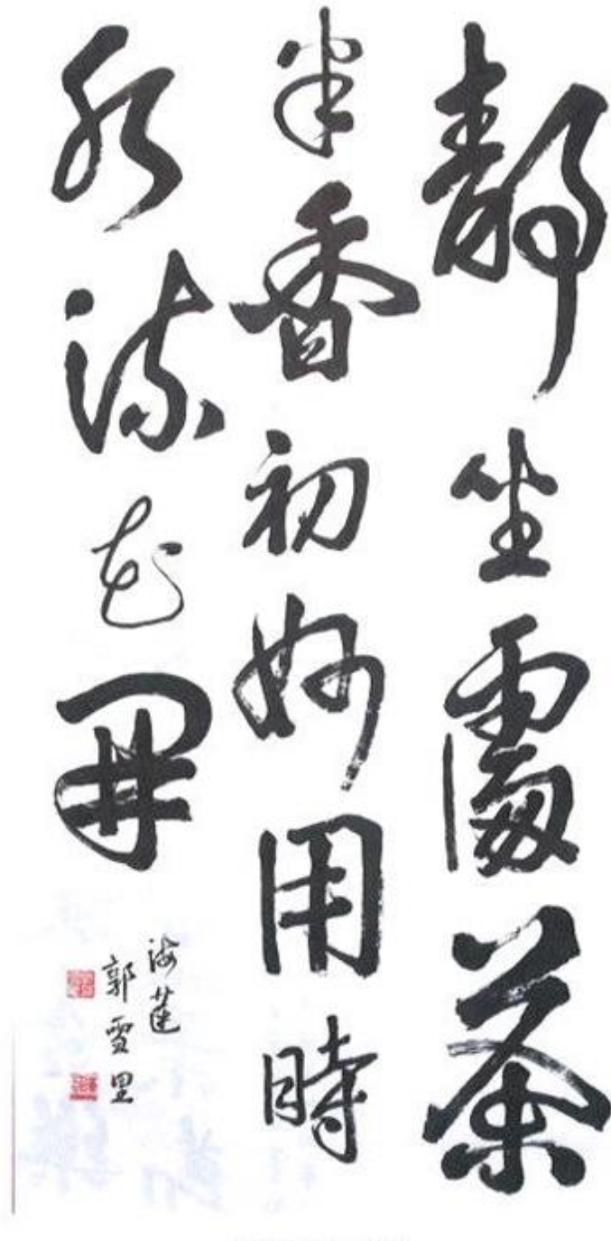
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(33X133cm)

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돌아
래 우유지는 생불같이 내마음
고요히 고은 봄길 위에 오늘 하루
하늘을 우러르고 실각 새악시
볼에 떠오르는 북그렁같이 시의
가슴살로 시 짓는 물결같이
보드레 한에 메랄드같이 흐르는
실비간 하늘을 바라보고 실각

강계선의 시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병신년 봄 자헌 레지나



곽설리
정좌처다 (68x134cm)



정좌처다반향초
모용시수류화개

도요히 앉은 자리에 차를 반 넘게 마시도록 타는 향은 처음과 같고
고요히 흐르는 시간에도 물은 흐르고 꽃은 지더라

김성복
단정호의 선자 (60x149cm)



이마는 붉고 옷은 희어 신선의 모양인데 참 성품 높은 목표는 봉황고 짝 함이요.
마음이 없어 달을 대하니 고요한 향아 선녀같고 뜻이 있어 바람에 임해서 한 번 우는구나

